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9호 [루체 제25007호] 주제 104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향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로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지금 우리 군대와 민민은 조국해방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드높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항일의 혁명진통을 넘으로, 꾀줄기로 이어받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용감한 투사들이 우리 천민군민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면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정신, 그 백으로 강성 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역, 대혁신을 일으키며 오늘의 총공격전을 더욱 드세하게 떠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죽어도 살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민군대의 실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져야 합니다.

혁명은 공격전이다. 사소한 침체와 탑보도 불사르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치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 나가는데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

우리 군대와 민민의 불굴의 정신과 결사의 투쟁에 의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이 훤히 떠쳐지고 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이 비상히 강화되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 위력이 천배로 높아지고 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절통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백두산군청년대상전송전선공사가 결속되고 삼지연군에 대한 시험승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미파파학자거리건설장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창조되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빨찌산식공체전립으로써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선군조선의 빨찌산녀들과 선수들이 혁명의 정신으로 만난을 놓고 솟구쳐 오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다.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개척기부터 자기힘을 박수를 치는 혁명가요에도 깃들여있고 혁명적구호문헌들에 새겨져있다. 정규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통쳐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항일전의 선포를 알리는 멀직의 총성도 민족자제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루할 자주의 총성이었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연길폭탄정신도 제손으로 자기힘을 헌백로에 다진 자력갱생의 정신이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인민을 믿었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4·15년도 바람앞에서도 동포를 몰았으며 끝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통쾌하게 쳐부시고 사대와 외세의 존으로 유통진 파란많은 민족수난사에 종지부를 짚을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다. 우리의 힘찬 진생결단의 정신으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령관동지를 정치사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성을 펼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성정신의 정신은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며 우리 군대와 민민이 물려받은 최대의 유산이다.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랑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천만군민의 용웅직대진군이다. 이 장엄한 전군길

에서 백두의 칼바람으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넉짜 정신으로 헌신과 헌신으로, 헌신과 헌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천만군민의 불리는 심장의 고동을 높뛰어 해주는 노래『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사령관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소나무처럼, 배우처럼, 참대처럼 절개하고 지조를 굽히지 않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신념이 오늘의 총진군대에 세차게 나래될 때 우리의 보폭은 더욱 커지고 우리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게 될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차넘쳤던 혁명정신은 미래에 대한 최대의 보루로 충만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섣한 풍이 훔쓰는 항일혁명의 전구들은 혁명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써워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나는 2015년 8월 15일 조선해방의 날인 중요한 계기에 조음하여 파키스탄인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각각에 가장 따뜻한 인사를 드리게 될기쁘게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떠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성우관계는 끊임없는 협조와 치해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친선의 뉴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고 확인합니다.

나는 각각에서 계속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인민에게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각에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후세인

2015년 8월 12일

이슬라마바드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귀국의 해방의 날에 조음하여 팔레스타니국가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각에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사이에 역사적이며 공고한 친선과 협조의 뉴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할것이라는것을 각각에 확인합니다.

나는 각각에서 배앗긴 자유를 되찾고 팔레스타니땅우에 통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우리 팔레스타니인민의 권리와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자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각각에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팔레스타니국가 대통령
팔레스타니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

2015년 8월 15일

라마라흐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꽁고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브라자빌

꽁고공화국 대통령

데니싸쓰느게쏘각하

나는 귀국의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인 독립 55돐에 조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꽁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귀국정부와 인민이 당신의 옮바른 평도밑에 민족적단합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오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 104(2015)년 8월 15일

평양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의 주체적력량축성에서 거대한 역할을 한 조국광복회

뜻깊은 조국해방 70돐에 조음하여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향일무장투쟁의 나날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민족

주자, 민족대단결의 리념미에 각각각

종의 광범한 대중을 굳게 끌어세워

조국해방의 주체적역량을 마련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불멸의 영적이 더욱

뜨겁게 세겨지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다른 나라에서의 인민전선과

통일전선운동은 많은 경우 오래

되지 않았으나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가혹한 괴롭힘압속에서도

즐기차게 발전하여 전민족을 일제

와의 관리싸움에로 준비시킬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주체적역량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변법할것이란 확신하고 있었었다.

일찌기 혁명의 개척기에 영성민족

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전민족의 단

합으로 주체적역량을 품은 우리

제품을 혁명의 승리로 담보하는 중

한적은 전략적문제로 보시고 민족대단

결의 전통을 마련하신 우리 수령님

이시다.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반일민족통일

전선운동을 세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

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안팎의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사적인 남호두희의에서 상상적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며 반일족

통일전선운동을 할일무장투쟁파의 긴밀

한계밀에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

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험을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펼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단을

조직하신 후 백두산으로 나가시며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민족대단결의 원칙

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민족대단결의 거세한 불

길을 그려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남호두로부터 통장에 이르는 험난한 로정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몸소 작성하시느라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사색과 심혈은 그 얼마나 모른다.

그뿐아니라 반일적인 나라와 민족들의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공동의 일제를 반대하는 현 할선을 풀어놓았던 그의 일정은 그 얼마나 모른다.

민족단합의 송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갖추신 위대한

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조선에서 통일전선체조직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사파와 주체적의 경륜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경륜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라 하지 않을수 있으리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활동무장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국적범위

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계계성있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역량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벽을 뚫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정치강령에 따라 이번에 국내외의 모든 반일적령을 풀어놓았던 그에 대한 통일적의

기여와 같은 쓰리면 교훈과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정치강령과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 기본정치강령에 따라 이번에 국내외의 모든 반일적령을 풀어놓았던 그에 대한 통일적의

기여와 같은 쓰리면 교훈과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광복회 창립과 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영적이 있다.

조국광복회는 단시일안에 수십만회원을

가진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

하였다. 조국광복회 창립후 그 조직망은

급속히 확대되어 전국각지들은 물론

만주와 일본의 조선인민주주지역들에까지

뻗어갔으며 거기에는 로동자, 농민

비롯해 어린 학생, 직원,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주의자, 애국

적종교인을 비롯하여 평범한 군중이

마련되었다.

조국광복회는 단시일안에 수십만회원을

가진 범민족적조직으로 확대발전

하였다. 조국광복회 창립후 그 조직망은

급속히 확대되어 전국각지들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까지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단을

조직하신 후 백두산으로 나가시며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시였다.

기성리온에도 없던 식민지 나라

조선에서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체

조직에 대한 백두산위인의 독창적인

사상이 중증한 열매를 맺을 날은

하루로 돌아오고있었다.

죽숙영의 우정 불가분으로 온 나라에 타

빛질 밤에 조국광복회를 세우고자

나는 각각에서 계속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인민에게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각각에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장
시

빛나라 조선 신문 경

내 조국의 빛나는 생이 시작된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새 삶의 고고성을 터친
뜻깊은 조국해방의 날

끌없는 자랑과 영광속에 백종치는
이 나라의 무궁한 새월을 안고
8월의 하늘 아래 흐르는
조선의 시간

평양시간
해방의 은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3천만의 마음들이
해속에는 아침 바다와도 같이
열광으로 끓어버린지
모란봉기슭 이 개선광장

어느덧 해방년으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건만
인민의 가슴에 더욱 긴격방치는
못 잊을 그날의 환희여

그립던 인민
그립던 장군
역사의 상봉을 축복하며
평양하늘에 쓸어져내리던
억만기념 해살이여

백만대적을 전률케 하던
백두산장군
밝게도 뿌리시는 그 미소
그 따뜻함에

거예의 가슴에 넘치던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더져오르나니
솟아오르는 태양을 우러르듯
짚신발로 달려와 키돌을 하는
사람들

긴간 암흑속에 시달려온 거예를
파스히 강씨안아주면
김일성장군의 그 음성
민족의 영웅의 뜨거운 개선인사

-침에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삼천리강산은
찬연한 아침해방과 같이
희망에 넘쳐 빛나고있습니다

끓어오르는 걱정을 안으시고
새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는
그 용성 미소에
치솟는 뜨거운 눈물로
인민이 터치면 환호성이여

눈보라 물어치는 만리팡야에서
찬눈을 깔고 가방입을 덮으며
혈전의 길을 이어오신 그이께
듯길은 그날

인민이 드린것은 무엇이던가
일령이는 흥모의 바다우에 반들려
연단에 오르신 그이께

해방을 맞이한 조국산천이
새 삶을 받아온은 자유조선의 인민이
삼가 염어드린 향기론 풋다발

조국의 명운을 구원해주신
백두산장군께 드리기엔
너무도 소박한 그 풋다발

은 거베를 품에 안듯
온 강토를 안으시듯

그이는 무겁게 받아안으셨나니

그 무엇으로 감사드리라
이 나라 인민이 조국을 잊고
진진 세월 걸어했던 노예의 사슬을

총대에 끌어던진 그 피어린 20

성상에

산새도 엎어 떨어지는 백설팡야
피뿌리며 오신 사선의 고비들에
부모형제 전우들을 물으며 오신
무수한 피눈물의 그 언덕들에

인민이 놓아드린 풋송이

오, 그것은

30대의 젊으신 민족의 어버이께
다 말기는

3천만의 심장

내 강호

이 조선의 무궁한 만년미래였나니

물어보자

훨훨 백두의 빙이 높아

그리도 넘기 겨웠었던가

굽이굽이 암록강이 넓어

그리도 건너서기 어려웠던가

땅도 하늘도 봄도 잃고

말도 글도

이름마저 빼았기고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던 조국아

강도 일제의 총에 맞고 칼에 찢어
비참하게 숨진 거예의 피눈물이

강화를 이루었나니

풀어도 빙어도 울길 없던

그들이 암흑 속에 시달려온 거예를

파스히 강씨안아주면
김일성장군의 그 음성

민족의 영웅의 뜨거운 개선인사

-침에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삼천리강산은
찬연한 아침해방과 같이
희망에 넘쳐 빛나고있습니다

끓어오르는 걱정을 안으시고
새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는
그 용성 미소에
치솟는 뜨거운 눈물로
인민이 터치면 환호성이여

이 땅의 봄아

정녕 하늘이 내신분

우리 수령님

반세기 얼어붙어

수천년의 해빛으로도 녹일수 없는

이 강토를

뜨거운 심장에 애아 다 녹여주셨나니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망국의 노래를 세기의 주인으로

숨겼던 베민년을 새 조선의 탄생으로

다시 살린 간교한 협정의 길

이야기하라

천교령의 눈보라여

원쑤들의 포위속에

축한에 흐려지는 의식속에

『반일전기』를 부르시며

기어이 이 조선을 구원하리라

억척같이 헤쳐가신 피ết은 그 자욱

자욱을

이런 천신만고의 땅들은

천이였던가 민이였던가

피어린 10년세월이

두번이나 굽이쳐간 스무해

항일전장을 한치 한치 선혈로 풀들

여온

피비단천리

불바다만리

우박치는 탄우속 헤치는 눈속에

서도

조국의 피라는 부름을 들으며

조국을 향한 걸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신

위대한 조국의 아들

백두의 서리날장검을 들어

강도 일제의 정수리에 벼락을 치고

황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로

일제의 폐망을 선고하신

전설적령장 김일성장군

끊어졌던 내 조국의 빈민년생을

신생의 휘령 넘치는 새 조선에 이

이놓으시고

한령생 뱃찌산의 그 걸음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이 땅에 세워주신

그들이 만고절친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은인

이상하고 힘들어진 위대한 수령들

이시라고 했다.

조국해방 70돐기념 제 1회

본조선인대표단 단장 박구호

는 해외교포통의 강화발전

에 쌓으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은 영원

할것이라고 썼다.

그들은 혼장 보존실들 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기까지 현지지도와 외

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

차와 전동차, 배, 맵차보존실들

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에브제니 부수민 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의 회대 표

단이 15일 만경대 데

방문하였다.

유서 깊은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문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

되어 있는 사적들을

깊은 감동속에 들어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암 침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

을 찍었다.

제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들어보았다.

그들은 만경대 암 침

방문을 기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 행사 참가자들과 해외동포들에

금지되었던 16일 극복

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군관

들과 주로 로씨야련방내사관부

관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렇다

피어린 항일의 20성상은

반만년세월보다 더 길었노라

8월 15일 조국해방의 이날은

유구한 역사도 찬란한 문화도

빛을 잃었던 이 나라가

김일성조선으로 새로 태어난 민족

재생의 날

그리고

운명과 비례를 다 달렸기에

해방된 인민이 하늘처럼 우러른

그의 모습은 곧 조국이었고

3천만이 심장으로 부른 태양의

그 존함은

빛나는 내 조국의 이름이 되었나니

오, 조선아

해방년의 개선광장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로

우리한국의 고고성을 터친

나의 조국아

가슴에 터치 내 조국의 이름이 되었나니

우리가 이렇게 뱃찌산을 하며

조국을 지켜낸 오늘을

절세위인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주체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가치 – 백두산!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 열풍이 떨을 전갈하고 있다.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이 뜻깊은 8월에 백두산 출기기 피어린 자유,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유를 짐짓으로 더듬으며 온 나라 군대와 민민이 오르고오르는 백두산! 언제부터였던가. 삼천리지매니 빛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이 이 나라 민심을 키운 혁명의 성산으로 그 이를 만방에 떨치게 된 것은.

『백두산에 장수별 솟았다』, 『백두산 호랑이 천하를 굽어보며 파운』...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악소민족의 비울을 통한민족이 나라 백성들의 피멍든 가슴마다에 백두산전설이 새겨진 그때로부터 백두산은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빛나는 조국해방의 등대, 혁명의 성산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신 혁사의 행운을 지닌 그때로부터 민심에 뿌려내린 백두산은 대를 이어 세기마다에 양년드롭지 않는 신념의 성새, 승리의 상징으로 천민의 심장에 솟아 빛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은 주체혁명의 새 혁사가 점쳐져 조국해방의 민족소리, 전역의 죽포소리, 사회주의 건설의 민족의 중심, 인민의 미마의 기통이었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민족자주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백두산으로 향한 이 나라의 민심이 그

뜻듯 강렬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백두산에 자기의 운명과 행복, 조국과 민족의 운명, 모든 승리와 번영이 다 있다기 때문이다.

오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가 천만군민의 삶의 주제가로, 선군조선의 대활창으로 될 될 이 비장한 현실은 바로 백두산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경줄수 없는 민족의 가장 귀중한 만족보이며 최후승리의 가치라는 것을 뜻이다.

백두산은 주체적인 혁명력을 핵심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朽의 업적을 천축으로 대에 전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기념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역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롭고 끊임없이 전할 혁사의 산입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전통으로 선군혁명의 새 혁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백만대군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항일대전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오신 혈결의 그 자우자우를 고이 안고 솟아 빛나는 혁사의 증거인 백두산,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부였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의 보루였으며 민족의 중심, 인민의 미마의 기통이었다.

위대한 혁사, 위대한 전통은 영원한 승리의 만년초석이다.

백두산에서 미련된 혁명경통이 있어 이 땅에는 백두산을 혁사안이 흐름것이

위대한 수령님, 혁제인가 어버이장군께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역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지이며 조선의 혁명적기상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한풀에 안고있는 유서깊은 산이라고, 백두산이 영원한 빛이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 자리난 우리 혁명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참으로 조선인민 혁명군을 핵심으로 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으로 강도 일제를 이룩하신 수령님의 불朽의 업적을 천축으로 대에 전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기념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역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롭고 끊임없이 전할 혁사의 산입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전통으로 선군혁명의 새 혁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백만대군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항일대전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오신 혈결의 그 자우자우를 고이 안고 솟아 빛나는 혁사의 증거인 백두산,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부였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의 보루였으며 민족의 중심, 인민의 미마의 기통이었다.

위대한 혁사, 위대한 전통은 영원한 승리의 만년초석이다.

백두산에서 미련된 혁명경통이 있어 이 땅에는 백두산을 혁사안이 흐름것이

수령님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들어서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융축되어 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들어서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융축되어 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이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백두산은 주체혁명의 승리의 혁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들어서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융축되어 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이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마무리로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의 혁명전통을 융고하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혁명역사가 민족만대에 흐르게 해주신 업적적으로 된다.

